



# 建築士協會는 果斷性있는 體質改善이 必要하다

會長 姜明求

近一年有餘를 協會運營에만 몸담아오며 여러가지 그 동안에 겪고 느끼고, 부탁드려야 할 점을 회원 여러분께 솔직히 까놓고 말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建築士協會 會長이 되기 오래 전부터 建築士協會의 여러가지 不協和音과 雜音을 먼소리로만 느껴지던 일들이 우선 무엇보다 먼저 建築士協會의 내적인 體質改善이라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理事와 이러한 큰 과제를 목표로 정열적으로 一年間 씨름을 한 結果는 단지 비판적인 사실 뿐이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協會는 비단 建築士協會뿐만은 아닙니다. 化粧品協會 畜産協會 등등 모든 분야에 다 제 나름대로의 協會를 중심으로 發展하며 자라나고 있으며 建築만 하더라도 建築士協會를 위시하여 建築學會, 建築家協會等 三個團體 中에서도 建築士協會總會하면 유명하리만큼 소란한 總會, 雜音 많은 회로 自他가 認知하던 事實을 想起하실것입니다. 제가 회장으 選任된후 여러 親知와 同業先任輩는 물론 심지어는 先任會長님까지 왜 그 말씀 많고 소란한 建築社協會 會長을 맡느냐는 근심으로 나를 아끼는 忠告와 厚意를 選任 投票 해주신 분들의 數만큼 여러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양측에 모두 다 감사한 마음 금할 바를 모르면서도 저는 저나름대로의 마음으로 여지껏 五〇평생을 한국에서 建築設計만으로 다채롭고 평온한 일생을 지내온 보답으로 우리나라 建築士를 위하여 그 험하다는 建築士協會의 일선에 나아가 복무함으로써 내가 입은 은덕에 봉사해야 하겠다는 의무감으로만 고생이 되

드라도 改善的 成果를 향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지금껏 변함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協會 운영면에서의 경험이 없었던 탓인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부딪친 애로가 공개장 사건이고, 저의 개인 세금 뒷조사의 회람. 그 다음이 建設部 인준방해 등으로, 약 2개월여를 지내는 동안 저는 회장 취임에 대한 결심을 더한층 굳히게 되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느낀점이 우리들 建築士 또는 건축가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同人 협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司法士協會나 會計士協會같은 딱딱한 인상을 완고하게 지니고 있던 점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技術者일 뿐 아니라 藝術家이고, 부드럽고 순수하며, 또 남에게 봉사하는 職業人으로서 知性이 높고 까다로운 일을 싫어하는 浪漫人으로서만 자부하고 살아오던 것이 마치 협회 회장이 되어보니 法院이나 세무서에 잡혀 앉아 會議를 거듭하고, 또 많은 時間의 浪費와 성과없는 法理論만으로 오랜 시일을 운영해 오던 잔영에 악몽같은 혐오와 個的인 利害, 상호의懼와 상호비방, 개인적 공명의 경쟁심의 선수들이 선출되고 모여앉아 運營되었고 또 그 血統을 이어받으며 運營되었다는 점을 ..... 뼈아프게 느껴가며 지금까지 싸움하다시피 안간힘을 쓰며 몇 理事만의 合力으로 시정에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理事會의 不參, 또는 불협조, 서류결재의 拒否 내지 사보타-지 기타 술수로 總會에서의 選出된 權限行勢만이지 義務의 不履行이고 會員에게 奉任는 고사하고 오히려 5년이 되도록 성과없는 協會의 運營과 會員間에 不信을 助長하였고 社會的인 不信마저 남기게한 셈이 되고 말았읍니다.

總會에서는 되든 않은 말발이나 서는 사람과 술이나 먹고 떠들썩하게 하여 建築士全般에 끼치는 影響이 어쨌든 建築士의 인격과, 設計業의 경력

이 여하튼 역원물망에 먼저 오르고, 동문이라 하여 역원에 선임되고, 하던 따위의 소위총회꾼 또는 協會꾼, 設計業은 부업이고 協會가 本業인 似而非建築士 등등의 협회운영을 허용한 회원들의 무성의가 현재까지의 우리들 建築士協會의 잡음의 震源的 요소이었다는 점을 우선 시정 하여야 하겠읍니다.

이 協會꾼들은 전력을 다하여 협회역원에 또는 支部長이 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합니다. 다행히 역원이나 이사에 被任되면 協會를 발전시킨다는 美名아래 協會를 밟고 자기이익, 자기이권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고 자기 역임을 위하여 會員을 포섭하고, 協會內에서의 모든 重要한 機密까지 協會의 運營支障도 不拘하고 팔고다니며 자기 개인의 공로를 선전하고 會員 또는 地方支部의 不當한 運營을 묵인하며, 시정·향상을 指示 교정할 의무대신 자기 역임 운동과 바터하며 協會 本部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하여 結果적으로는 會員은 支部를 불신하고 支部는 本部를 不信하게끔 만들어 社會가 建築士를 不信케까지 하는 악순환으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支部없이 무슨 本部냐는 식으로 마치 本協會가 各支部의 下請業者나 되듯한 態度도 … 根本적으로는 이러한 協會꾼들의 運營방식과 思考不足에서 기인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읍니다. 委任運營체인 各支部 중에서도 몇 支部는 고의로 또는 他意로 本部에 대한 송금을 中間流用 하는 것으로서 支部의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므로 심지어는 納入金 독촉공문을 찢어버리는 不遜까지하는 참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本部운영에 지장까지 촉 구케하는 행위는 회원의 會費와 實蹟會費의 納拂 善意를 무시함은 물론 협회발전마저 침체케하는 또 하나의 썩은 證據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여러가지가 우리 協會運營의 內在한 애로이었으므로 우선 금번 總會에서부터라도 모든 役

員, 理事 選出에 있어 역임을 지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設計事務中 권위있는 큰 事務所는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중급이상의 설계사무소를 運營하고 있는 會員으로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양식과 教養있고 자기 자산도 있는 분이면 더욱 좋고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建築士 全体를 대신할 수 있는 품격을 지닌 분을 선출해야 할 것이 시급한 체질개선의 기초가 될 것을 믿어마지 않으며 꼭 부탁드리고 싶은 첫째 조건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처해 있는 모든 協會의 難境은 반드시 建築士協會를 운영해 온 會長, 理事나 支部長 또는 役員에게만 그 責任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믿읍니다. 우리들 9백 50여명의 會員中에서 選出하였고 또는 일부 회원은 외면상태 아니면 또는 無關心하였던 全會員의 책임도 똑 같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우리 회원들 中에서도 建築士協會를 지금까지 代書房協會라고 賤言하고 천시하는 不關涉 또는 외면하는 會員들도 協會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호홉하고 있고, 이해를 같이 하면서도 建築士協會 總會에 참석하고난 후에는 또 다시 建築士協會를 외면하는 權威的 建築士나 無知覺에서 오는 무성의 建築士들도…… 선거 운동에 춤추는 建築士와 학교 派벌을 고수하려는 建築士들, 이러한 建築士들의 책임은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會員중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들끼리의 約定인 實蹟會費를 圖書登錄費라고 지금도 公公히 말하고 있는 會員이 있고, 不正 不實建物の 봉조를 말하는 會員, 不實한 設計를 賄賂로 칭칭 감어 넘겨 社會를 흐리게 하는 會員 名義 代與를 正業으로 하는 會員 등등의 自体 교정 問題를 內包한 채 協會 運營에까지 허다한 문젯점을 固疾的으로 保守的 態度를 고집하며 물고 늘어져 왔지만 이제 와서는 그냥 이대로만의 형식으로 굴러나가지는 못할 지경에까지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柳光鉉議員 제의로 建築士法 改定中 제22조 削除法案이 나와있고 建設部에서는 建築士協會의 發展과 育成監督을 위하여 建築課가 新設되었고 大韓建築學會에서까지 理路整然한 建築士法 改定을 審議 中이라는 消息이 들려나오고 있고 韓國建築家協會에서만은 建築士法改定에 관하여 마땅히 大韓建築士協會의 體質改善만 이루어진다면 22조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한 論說이 建設通信에 보도되는 이 마당에 우리 建築士協會 自体内에서의 體質改善이 안된다는 理論이 成立되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은감이 깊습니다. 이 體質改善이야말로 韓國의 建築士가 뭉쳐서 보다 잘 살 수 있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서로 믿고 한데 뭉쳐 時急한 自体内 體質改善의 果斷이 내려져야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릇된 채 묶이고 묶임을 出馬運動이나 利用하며 2급을 廢止하고 1급과 합치는데 使命을 갖고 일하겠다는 甘言에 속은 會員, 속인 理事役員은 選任되는 날부터 단지 役員延命의 구실로 일했다는 證據로만 그치고 그 이상 움직이지 않는 背信을 딱 먹듯 하는 理事役員과 會員들과의 惡循環 二重職과 大學教授는 建築士의 敵이라고 排他的 先行이 뒤에서는 名義代與를 눈가리게 하기 위한 술수에는 능하면서도 建築士끼리의 等級別도장貸與를 공공연히 默認 協助하면서 돌팔이 設計事務所가 서울 市內에만도 2백여개소. 이러한 모든 부정 凶書가 全体 올바른 建築士의 品位 向上을 그 얼마나 저락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서울 市內에 이러한 2, 3백이나 되는 가짜 凶書에 도장이나 찍어주고 있는 弱少會員의 약점을 총동하여 平地風波式 團合으로 役員이나 되면의 레 이러한 役員일수록 나는 9백 50명의 대표인 理事인데!! 라는 그 알량한 권능만을 내취두르며 내 權限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行使하는데 라는 건방지고 모자란 生覺을 가진 理事, 役員을 뽑아서는 절대로 우리 建築士協會는 前進은 커녕

급속도로 후퇴를免키 어려울 것을 確信합니다. 自由가 許容되는 社會라고는 하지만 各役員, 理事, 會長이 行使할 수 있는 그 自由는 建築士協會가 指向하는 목표와 合目的일 때에 비로소 妥當性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도 제가 建築士協會 會長職에서 되찾은 좋은 교훈이었음니다. 建築士協會가 이 危機에서 벗어나 한층 더 發展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재와 장래와 한국을 위하여 우선 似而非建築士를 가려낼 줄 아는 양식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모든 役員, 理事, 會長의 厂任을 止揚하고 情熱的이고 良心껏 奉仕할 수 있는 有能한... 協會일에 젖어서 마비되지 않은 新出 人物 中에서 냉철하게 判定된 사람을 자기가 투표하였다는데 子부를 가지고 協會에 적극 협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惡要素가 제거된 與件確立下에서 正한 의미로 正當하게 協會가 運營軌道에 오르게만 된다면 국회에 제의된 建築士法 第二十二條關係도 무난히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들끼리의 體質改善을 과감히 先行하고 있는 實況을 하루 속히 社會가 認知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絶대적인 先行 조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建築家가 지냈던 예전의 높은 지위(建築家は 政治, 經濟, 文化, 宗教, 全般에 걸친 諮問職이었으며 현재에도 모든 藝術의 統合指揮를 할 수 있는 職種으로 되어 있음)를 되찾을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報酬로 보다 훌륭한 建築設計를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합심하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建築士는 신사의 대명사가 될 날을 爲하여 다 같이 전진합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役員, 支部長, 理事, 會長職은 一年制 無厂任으로의 改定案을 提案합니다. 不實한 二年보다 알찬 우리들의 권익을 爲하여 同意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